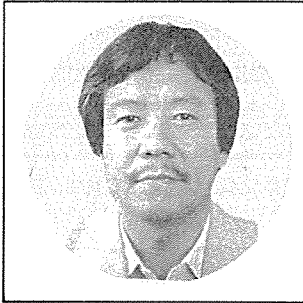


“걱정이 앞선다”



張潤宇

〈誠信女大 産業大學院 원장〉

金剛山을 가보게 된다.

꿈에나 그리던 세계적 名山이자 한국민족의 자랑인 금강산을 지적에 두고 그린지 반세기가 되어오건만

南北단절의 아픔속에 누가 감히 금강산을, 피 어린 이복땅을 밟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였겠나. 그러나 정치가가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이루지 못했던 꿈을 한 기업인이 이루고 있다. 엇그제까지만 해도 생각 못한 남북왕래가 쉽사리 이뤄질 전망이어서인지 매스컴마다, 장안의 화제마다 지나치게 들뜨고 있다.

思想과 단절의 壁이 허물어지는 건 세계적 추세이다. 6·25전란과 뼈아픈 군사정권 밑에서도 참을성 있는 우리 국민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슬기롭게 넘겼기에 오늘의 國力을 일궈낸 것이고, 이 경제적 번영이 어쩔 민족통일마저 가능케할런지 모를 시점에 이르렀다면 나머지 격양된 탓일까?

일제말기 극도로 궁핍한 생활을 보낸 건 나뿐이 아니었다. 전쟁터로 모조리 공출당해 죽마져 얻어먹기 힘들어 나무껍질이나 찔레순, 아카시아잎 등으로 虛氣를 메꾼 기억이 새로웁다. 해방이후의 생활도 동족상잔의 戰禍속에 나아질리가 없었으니 오늘의 젊은이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일부학생들은 6·25南侵을 아직도 北侵으로

믿는가 하면 끝없는 피난행렬과 폐허화한 도시의 Film마저 외면해버린다. 물론 미개발국의 빚더미는 어제 얘기가 되었다.

생산과 수출이 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국민소득이 날이 다르게 향상되어 갔으니 예제의 家內手工的 생산방식이 현대적 양산체제로 뒤바뀌었다.

관광자유화의 물결이 「어글리코리언」의 눈살 찌프릴 일을 동남아시아 각국에 뿌리고 다니지만 일시적 현상일 뿐이리라. 이제 당당한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진지는 드셨습니까」 오죽이나 힘든 삶이었으면 밤새 무사하였다든가 진지(食事) 드셨느냐는게 인삿말이 되었겠나를 돌이킬 의향은 없다. 半萬年 艱苦사를 통해 남을 정복하거나 못되게 구는 일이 없이 被侵의 아픔뿐이었음에도 이를 굳이 잊고자 하는 어진 민족이기 때문이다.

美酒一盞消舊愁 相逢一笑淚恩仇
단술 한잔에 옛걱정 녹아버리고
만나서 한번 웃으니 지난 원한이 모두 매워진다는 漢詩로 비유시킨 학자가 있다. 싱거울 정도로 관대하다.

5共非理에 대해서도, 광주사태에 대해서도, KAL기 격추만행에 대해서도 관대하다. 과학학생들의 화염병이 생계유지의 서민차량을 태우거나 가게 진열창이 깨어져 손해가 막심해도,

가르침을 받는 스승의 머리를 뽀뽀 깎아내도
관대하고 금시 잊어버린다.

수출산업과 과학기술의 진흥에 머리를 쓴 건
확실히 잘한 일이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에게 뛰어난 두뇌와
손재주, 부지런히 일하는 게 상책이었다. 예컨
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숙련된 청소년대표를
파견해서 連覇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것
도 방법이다.

정부차원이거나 민간기업주도로 혹은 각 대학
부설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과학기술을 궤도에
올려놓는 일도 주효했으나 일각에서는 아직도
未洽하다는 주장이다.

「단 한방울의 석유도 나오지않는 나라에서...」
그렇다. 온국민이 얼마나 석유를 熱望했으며
또한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척박한 땅에 살며
그토록 많은 시련을 겪었으니 반대급부로 악착
같은 根性を 키웠다. 뉴욕의 商權은 이제 韓人
사회가 휘여잡는 모양이다. 장사라면 세계적인
유태商人이 새벽에 가게문을 열면 이미 한인들
은 가게앞까지 말짱히 쓸어 놓았다 든가.

거리를 걷는 평균속도를 측정한 결과 한국인
이 Economic Animal이라고 욕먹는 일본인 보
다도 빠른 세계제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바쁘
다, 바쁘게 남들보다 먼저 앞장서야 살기 때문
이다.

이탈리아나 스웨덴, 프랑스인들은 조상을 잘
둔 탓에 가만히 앉아서도 전세계에서 물러드는
관광인파로 외화가 쌓이는데 척박한 땅과 빛만
안겨준 우리네 조상때문에 한국인들은 부지런
해졌다.

이웃나라 중국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부러
워한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60년대 서방각국
이 노력집약생산을 지식집약생산으로 전환할
때 아시아 4마리 작은 龍이 비약하기 시작했다.
그들 제품은 서방시장을 무인지경을 달리듯 온
누리를 누볐다. 우리는 그기회를 감감히 몰라서
놓쳤다. 20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는 작은 용들
이 노력집약생산을 지식집약생산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왔다. 이기회에 한국은 비약하여야 한다.

만약 절호의 찬스를 포착 못하면 이번엔 뻔히
알면서 비약의 기회가 태국·인도네시아·스리
랑카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만 있게될 것이다.
그다음엔 우리는 또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한다. 개방압력과 知的所有權문제,
그리고 이웃나라들의 맹렬한 추격이 덧붙혀 고통
치 아픈 게 있다. 청소년대책이다.

집집마다 떠안고 있는 자녀들의 진학문제와
자유방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학의 문은 좁고 그나마 경영압박에 허덕인
다. 태부족인 교수충원은 예산부족으로 개선기
미가 없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원의 담당
인원보다 많은 45인정도를 맡고 있으면서도 제
자들에게 수모를 당한다.

스승님의 그림자도 안밟는다는 옛말은 없어
진지 오래이고 생활도 빈궁하다. 데모, 인질, 농
성, 쫓겨나기, 거기에 말로만 자율화이지 실제
문교행정은 그렇지 못하다.

Quo Vadis! 갈곳이 없는 건 교수뿐이 아니다.
再修, 三修生들이고 졸업이후의 취직난이다. 대
학졸업사무직 임금이 생산직보다 떨어지고 있
다. 앞으로 私學은 예산치출이 적은 계열을 뽑고
과학 기술이나 의과계열은 정부가 떠맡으라는
공청회도 나올법 하다.

國家百年大計의 인재양성에 右往左往하면 가
뜩이나 혼란한데 <너도나도 목청높은 사람만이
수지를 맞춘다는 等式>에 것잡을 수 없게 된다.

내일이 없는 젊은이들은 심야디스크장이나
퇴폐술집에서 시들어간다. 유흥비조달을 목적으
로 잔인한 범죄에 쉽사리 빠져든다.

이들의 체념과 반사회적행동이 겉으로 풍요
하고 속으로 굶는 깊은 난치병에 이 나라가 걸
리게 한건 누구의 책임인가.

정신문화를 시들게 하는 물질만능 온갖 투기
와 범죄, 도시공해에 대해서만은 절대 관대해서
는 안된다.

금강산을 가보게 된다고 해서 산적한 난제를
뽕개치고 나선다면 장래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걱정이 앞선다.